

고향의 품 같은 외암리 민속마을

강 욱
자유기고가

아산(牙山)은 예로부터 충절과 효심의 고장으로 잘 알려졌다. 나라가 어려울 때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나아가 싸워 나라와 고장을 지킨 애국지사가 유난히 많은 곳이기도 하다. 바람 앞의 등불 같던 조국을 지켜낸 충무공 이순신, 3대에 이르는 임금을 모시며 한 시대를 태평성대로 이끈 명재상 고불 맹사성, 조국 근대화에 앞장선 개화파의 거두 김옥균 등, 실로 아산은 역사와 함께 숨쉬어온 도시인 것이다.

그러기에 아산시에는 역사적으로 그 가치가 높은 많은 문화유적들을 간직하고 있다. 이순신 장군의 얼을 기린 현충사와 그 사적비와 묘소 등이 있고 맹사성의 가문이 살던 맹씨 행단, 김옥균의 묘, 옛적의 교육을 담당했던 향교와 서원, 깊은 불심이 배어있는 사찰, 곳곳의 성벽과 충절비 등이 아산시 전역에 걸쳐 자리잡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산은 예로부터 그 수질이 좋기로

이름난 온양온천, 도고온천, 아산온천 등과 십여군데가 훨씬 넘는 낚시터를 가지고 있어 서해안 최고의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다.

그중 포근한 옛 마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외암리 민속마을을 찾아가 보았다. 온양 온천 송악사거리에서 공주로 가는 39번 국도로 6km쯤 가면 송악면 소재지가 나온다. 그곳에서 좌측으로 나있는 우회도로로 들어서서 송남초등학교와 송악농협 사이길로 1km를 더 가면 외암 민속마을이 나온다.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에 있는 이곳 민속마을은 타지방의 민속 마을처럼 잘 알려지지 않는 곳이다. 그러나 낙동강이 휘감아 돌아간 물도리동 형국의 안동 하회마을, 사대부집이 언덕을 따라 특이한 구성을 하고 있는 경주 양동 마을보다는 훨씬 옛적 우리나라 마을의 일반적인 구성을 갖추고 있다. 특히 마을의 조화라는 점에서 모범을 보이는 곳이다.

이 마을의 유래가 조선시대 중엽 명종(1534-1567)때에 장사랑(將仕郎)이던 이정(李琺) 일가가 낙향하여 정착함으로써 예안 이씨 세거지로 된 것으로부터 출발하였다 하니 능히 400년의 내력을 자랑하고 있을만하다. 이정의 6세손인 이간이 설화산의 정기를 받아 호를 외암이라 지은 뒤에 그를 따서 마을 이름으로 외암을 부르게 되었는데 뒤에 한자만 바뀌어졌다. 마을은 배방면 중리의 맹씨행단과 마찬가지로 설화산에 등 기대어 배산(背山)으로 삼고 마을 앞으로는 작은 냇가 흘러 전형적인 배산임수 지세에 자리잡고 있다.

마을의 초입에는 광덕산에서 흘러 내려와 마을 앞 평촌 뜰을 적시는 앞내가 있는데 웅기종기 모여있는 인가를 휘돌아 내리는 냇가가 전형적인 시골마을 풍경을 만들어주고 있다. 냇를 가로질러 놓인 다리를 건너면 왼쪽에 소나무 숲과 아담한 정자가 있어 마을 사람들의 쉼터 구실을 한다.

외암리 민속마을에서는 무엇보다도 나지막한 돌담장이 인상적인데 마치 마을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돌담장에 둘러싸인 느낌을 준다. 집집이 쌓인 담장 길이를 모두 합하면 5,000m나 된다니 실로 놀라운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돌담들은 중세 유럽의 성처럼 위압적이거나 권위적으로 버티고서 있는 모습이 아니라 소박하게 막들로 덩성덩성 쌓여 있는 모습으로 돌담을 바라보면 왠지 모르게 우리 조상들의 훈훈한 숨결을 느낄 수 있게 된다.

한편 돌담은 집집마다 울을 이루고 있기에 다음 시야를 쉽게 드러내지 않고, 끊어

질 듯 이어지며 마을 곳곳으로 발길을 잡아끌며 그 사이를 걷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유를 만들어 주기도 한다. 기우일지는 몰라도 아이들과 함께일 경우 길을 잃지 않도록 배려해 주어야 함도 잊어서는 안될 것 같다. 전체 가구가 60여호 남짓 되는 이곳 외암리 마을은 실제 살아 있는 삶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는 점이 박물관에서 옛 흔적을 보는 일과는 다른 느낌을 준다. 직접 이곳에서 삶을 살고 있는 마을 주민들과 만나게 된다는 점이 많은 것들을 보고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들은 대부분 초가집이고 그 외 기와집은 10여채가 되는데 중부 지방의 반가(班家) 구성을 잘 보여주는 집들로 대개 100여년에서 200년씩 된 집들이다. 그 때문에 1988년, 정부에서 전통건축물 보존 지구로 전국에서 2번째로 지정하였다.

초가집들은 비교적 옛 맛을 느낄 수 있으며, 현재 변형된 초가는 복원을 하고 있다. 양반집 중에서는 영암댁, 송화댁, 참관댁으로 불리는 기와집 열 몇 채 가운데 참관댁과 영암댁이 가장 대표될 만하다. 중요민속자료 제195호로 지정되어 있기도 한 이참관댁은 조선 말기에 참관 벼슬을 지낸 퇴호 이정렬이 고종으로부터 하사 받아 지은 집이어서 그리 붙었다고 한다.

참관댁 큰집은 대문채와 사랑채, 안채로 구성되어 있으며 곳간채가 사랑채에 연결돼 붙어 있다. 대문채는 여덟 칸 일자집으로 솟을대문이 이 집의 위엄을 말해 준다. 왼쪽으로 가면 대청을 가운데 두고 큰사랑

과 작은사랑이 마주한 사랑채로 오르게 된다. 안채는 두 칸 짜리 대청을 중심으로 왼쪽으로 부엌, 안방, 윗방, 골방이 차례로 놓였고 오른쪽으로 건넌방에 연이어 작은 부엌이 있고 다시 머릿방이 있다.

참판택 집은 구조가 전체적으로 잘 짜여져 있으면서도 틀에 갇힌 답답함이 없어 어딘지 열려있는 여유와 포근함을 느낄 수 있다. 대청과 건넌방 앞에는 툇마루가 있고 안방 앞과 대청 뒤로는 쪽마루가 놓여 구석구석 삶의 편리함을 도모한 손길이 느껴진다. 이참판택의 퇴호 선생의 유물과 민속 용구들은 온양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또한 이곳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가주(家酒)인 연엽주는 무형 문화재 제 11호로 지정되어 있을 만큼 그 맛이 유명하다. 전통 술인 연엽주는 민속마을에서 500여년의 세월동안 뿌리를 내리고 있다. 찹쌀로 빚은 누룩, 연뿌리, 연줄기, 연잎과 술잎을 넣고 발효시킨 술로 옛날에는 왕에게 진상되었다. 민속마을을 찾아가면 그 품질이 뛰어난 연엽주 맛을 한 번 봐둬도 좋을 것이다.

조선 초 정승 맹사성(孟思誠) 고택(古宅)은 외암리 민속마을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자리잡고 있다. 역시 온양시에서 공주 방면 39번 국도를 따라 가다 철길 건너 첫 번째 사거리에서 좌회전하여 온양천을 지나 우회전하면 수철리로 접어든다. 계속 직진하다 보면 중리길이 나오고 중리 초입 입구 길가에 ‘맹씨행단’(孟氏杏壇) 이정표가 반갑게 서있다. 맹씨행단이란, 말 그대로 맹씨가 사는 은행나무 단(壇)이 있는 집이라는 뜻이다.

시내에서 그리 멀지 않은 중리 마을이지만 마치 깊은 산골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위쪽으로 광덕산과 설화산이 우뚝 솟아있고 앞쪽으로는 배방산을 중심으로 나지막한 산들이 마을을 아늑하게 감싸고 있다. 맹씨행단이 자리잡은 자리는 풍수적으로도 매우 길하여 기(氣)를 가득 담은 형세를 지녔다고 전해온다.

사적 제109호로 우리나라 살림집 가운데 가장 오래 된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맹씨행단은 본래 고려말의 최영 장군이 살던 집이었다. 그런데 맹사성이 다섯 살 때쯤 아버지 맹희도를 따라 온양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바로 최영장군의 이웃집이었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늠름했던 맹사성의 사람됨을 눈여겨본 최영은 그를 손녀사위로 삼아 집까지 물려주었고 이후 맹사성 일가는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집이 처음 지어진 연대는 14세기 중엽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후 성종 13년(1482)과 명종 10년(1632)에 안채를 크게 중수했다고 기록은 전하고 있다. 근대에 들어와서도 1929년과 1970년에 다시 크게 중수를 해 적어도 서너번은 구조가 바뀌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 모습은 처음 지었을 때와는 많이 달라졌으며 그 중에서도 초창기 때의 부엌을 아예 떼내 버려서 어딘지 모자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집 뒤쪽으로 돌아가 보면 양 옆으로 기와를 층층이 쌓아올려 세운 굴뚝이 아주 정겹게 느껴진다. 굴뚝 위에도 작은 기와 지붕을 올려 비를 가린 모습을 보이는데,

경복궁 교태전의 굴뚝과 공주 마곡사 요사채 등의 굴뚝 모양과 흡사하다. 즉 집과는 좀 거리를 두고 구들에서 나온 연기가 땅 밑을 통해 밖으로 빠지게 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본채 뒤편에는 맹정승과 그의 부친인 맹희도, 조부 맹유의 영정을 모신 사당이 있고 집 앞쪽으로 있는 요즘 살림집에서는 아직도 후손들이 기거하며 맹씨 행단을 돌본다.

나지막하게 돌담이 둘러져 매우 아늑한

뜰 안에는 등치가 건설한 은행나무 두 그루가 서있다. 본래 행단(杏壇)이란 공자가 은행나무 위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다는 얘기에서 나온 말로 학문을 닦는 곳을 상징하는 것이다. 맹사성은 이 은행나무 두 그루를 손수 심고 학문에 정진하며 후학을 가르쳤다. 600년 묵은 나무들은 그러한 뜻을 담은 채 해마다 은행을 다섯 가마나 내며 늠름히 이 집을 지키고 있다. 